

국문 번역본 〈설공찬전〉에 반영된 사생관(死生觀) 고찰

허순우*

— <차 례> —

1. 서론
2. 원귀와 한에 대한 탈이념적, 현실적 이해
3. 삶과 죽음 간의 심리적 거리 좁히기
4. 부조리한 현실 전복의 상상력과 저승의 질서
5. 결론 : 죽음을 통해 확인한 현세적 삶의 가치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초 채수가 한문으로 창작한 <설공찬전(薛公瓚傳)>을 17세기 중엽 국문으로 번역 필사한 <설공찬이>를 대본으로 한다. <설공찬이>는 조선 왕조 최대의 필화(筆禍) 사건을 불러 일으켰던 <설공찬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초의 발굴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금서(禁書)로 지목되었지만 16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으면서 민간에 전해지고 국문으로 향유되었다는 점에서도 소설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또한 <설공찬이>는 ‘빙의(憑依)’라는 기이한 현상을 계기로 하여, 당대인들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을 소박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 편의 문학 작품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설공찬이>에 반영되어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곧 사생관(死生觀)을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관심, 내세관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설공찬이>는 빙의라는 방법을 통해 원귀와 인간의 만남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원귀 자체의 모습이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 빙의의 대상이 된 인간과 주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거하거나 괴기하게 외형을 변화시켜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설공찬이>에서 그려지는 원귀(冤鬼)의 모습은 유희적 자장 안에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 이념화 된 원귀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교적으로 이념화 되지 않았고, 또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자신들의 한을 풀고자 하는 원귀의 형상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무교적 신앙이 바탕이 되어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설공찬이>에는 원귀를 공포의 대상으로 이해하여 축귀의식을 벌이면 서도 공포의 대상인 원귀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때 살아있는 자들이 원귀가 된 공찬에게 하는 질문이나 공찬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승의 모습은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면이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40리 밖에 존재하는 곳, 이승과 동일하게 가족관계를 이루며 사는 곳, 벼슬이 있고, 세금이 있는 곳으로 저승이 묘사되는 것이다. 이는 곧 죽음과 삶의 물리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죽음과 삶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혀보려는 당대인의 상상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때 삶과 죽음의 거리를 좁혀 이해하는 의식 안에는 내세가 현세의 고난이나 부조리를 해소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과 시간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때의 소망은 내세를 긍정하고 회구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인과응보의 삶의 원리, 즉 고난이 많은 현세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힘이자 개인적 기복(祈福)의 차원에서 상상의 공간을 통한 대리 체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설공찬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현실의 고난에 대한 내세적 극복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세적 삶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공포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므로, ‘현세중심적 사생관’이 핵심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보였다. 이렇게 인간의 형체와 비슷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세 중심적 사생관을 드러내는 경향은 무교나 민요, 설화 등에서 발되는 것으로 삶과 죽음을 철리(哲理)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와는 상반되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소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설공찬전, 빙의, 사생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호기심, 삶에 대한 애착, 내세관, 현세 중심적 사생관.

1. 서론

16세기 초, 문인 채수(蔡壽)가 지은 <설공찬전>¹⁾은 조선왕조 최대의 필화(筆禍) 사건을 일으킨 소설이며, 창작된 이후 오래지 않아 국문으로 번역 향유됨으로써 <홍길동전>보다 이른 시기에 국문으로 읽힌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설사적으로 의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 그간 실물은 확인할 수 없었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어숙권의 『패관잡기』 기록을 근거로 ‘윤회화복(輪廻禍福)’을 다룬 소설이라고 개략적으로 이해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목재공파 문중 소장 『목재일기』를 정리하다가 일기 이면에 쓰인 국문 번역본 <설공찬이>를 발견, 구체적인 작품을 접하게 되었다.

<설공찬전>은 조선전기 소설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완 가능하게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오신화>가 창작된 15세기와 소설 장르가 융성했다고 보는 17세기 사이의 소설사적 공백을 채워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소설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양태로 드러나는 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연구도 <설공찬전>이 실화를 기반으로 창작되었지만 소설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늦어도 17세기 이전에는 국문으로 필사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16세기 소설사에서 이 작품이 접하는 위치를 확인²⁾하려 했고, 유가적 이념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람과의 의도적 필화사건이라는 점을 통해서는 정치적, 사상적 이념에 의해 문학의 성격이 변모되는 양상을 확인³⁾하려 했다.

1) 채수가 지은 소설은 <설공찬전>, <설공찬환혼전> 등으로 불렸다. 현재 학계에서 <설공찬전>으로 명명하므로 이에 따랐다. 채수의 <설공찬전>과 『목재일기』 소재 작품을 구별하는 경우 국문 번역본 <설공찬전>은 <설공찬이>로 하였다.

2)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박이정, 2003.

3)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신이(神異) 인식의 의미』, 『문헌진 문학사

그러나 <설공찬전>의 필화 사건과 사람과의 정치적 목적을 연결 짓는 논의는 <설공찬전> 국문 번역본인 <설공찬이>의 실물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설공찬전>에 ‘윤희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⁴⁾ 그렇기 때문에 채수를 교수(絞首)해야 한다⁵⁾는 의견이 오고갔던 『조선왕조실록』 중종(中宗)조의 기록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정보들이 현전하는 <설공찬이>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⁶⁾ 그런데 <설공찬전>에 관한 연구는 <설공찬이>가 발굴된 이후에도 이 작품이 신이(神異)를 향한 15세기의 문학적 충동을 약화시키고 사립적 지향인 입신양명이라는 행복한 결말을 끌어오게 한 점, 즉 15세기까지의 신이에 관한 문학사적 유산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에만 주목⁷⁾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필화사건 자체가 ‘신이’ 담론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설공찬이>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신이의 측면에서 이

의 복원], 소명출판, 2007, 37-64면.

- 4) 『朝鮮王朝實錄』, 中宗 14卷, 6年 己酉 / 臺諫啓前事. 憲府啓: “蔡壽作《薛公瓚傳》, 其事皆輪回、禍福之說, 甚爲妖妄. 中外惑信, 或繾以文字, 或譯以諺語, 傳播惑衆. 府當行移收取, 然恐或有不收入者, 如有後見者治罪.” 答曰: “《薛公瓚傳》, 事涉妖誕, 禁戢可也. 然不必立法. 餘不允.”
- 5) 『조선왕조실록』, 中宗 14卷, 6年 乙丑 / 命罷仁川君蔡壽職, 以其撰《薛公瓚傳》, 造怪誕之說, 形諸文字, 使人信惑. 依左道亂正扇惑人民律, 憲府照以當絞, 只命罷.
- 6) <설공찬이>에 있는 “예서 님금이라도 주전통 ㄱ툐 사람이면 다 디옥의 드렷더라” (<설공찬이>, 10면 : <설공찬이> 본문은 이복규의 『설공찬전 연구』(박익정, 2003)에 제시된 것을 토대로 하였다.)와 같은 구절이 <설공찬전>에도 있었던 것이라면 이를 왕권 모독적인 발언으로 읽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중종은 채수를 파직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뒤집어 보면 <설공찬전>이 채수를 교수 할 정도로 황탄하고 기이한 망언을 늘어놓은 작품은 아니라는 판단을 중종이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설공찬이>가 원작 <설공찬전>의 충실한 번역본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주전통에 관한 이야기’도 원작 <설공찬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설공찬이>를 옮긴 사람이 첨가한 것인지 혹은 <설공찬이>의 대본이 되었던 작품이나 구전되던 이야기에 첨가된 것인지 불명확하다.

- 7) 조현설, 앞의 글, 2007 참조.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품 외적인 상황에만 주목하다 보니 작품 자체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함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지점기도 하다.

물론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으로 현재 발굴된 작품이 원작과는 거리가 있는 국문본이고 게다가 작품의 일부만이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⁸⁾ 그러나 비록 원작과는 거리가 있는 국문본이고 또 작품 전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문으로 된 이본 <설공찬이>가 발굴된 만큼 <설공찬전>에 대한 고른 이해를 위해서는 문학사적 의미 찾기에 편중되어있는 연구의 시각을 작품 내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6세기 초에 창작된 <설공찬전>과 17세기 말에 필사⁹⁾된 <설공찬이> 사이에는 약 160년의 간극이 있다. 이 시간적 간극은 ‘요서(妖書)’로 지목된 <설공찬전>이 국가적 규제를 피해 오랜 기간 남아 전해질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동시에 원작과의 시간적 거리는 <설공찬이>가 16세기의 <설공찬전>과 구별되는 한 편의 독립적 작품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

8) 현전하는 <설공찬이>는 작품의 일부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16세기 당시 필화사건을 불러 일으켰는가를 조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 <설공찬이>에 있는 세부적 서술이 16세기 <설공찬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설공찬이>가 번역과 유포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 사건 진행을 제외한 세부적 디테일이나 진술방식 등에서 원작과는 상당한 차이를 내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소인호, 『설공찬전 재고』, 『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1998 참조.)

9) 이복규는 『목재일기』가 필사된 시기와 국어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공찬이>가 1685년을 전후한 시기에 필사되었다고 보았다.(『설공찬전 연구』, 박이정, 2003. 112-127면.)

10) <설공찬이>라는 구비적인 제명이나 작중 인명의 착종 현상, 구어체적 표현 또한 이 작품이 향유 집단의 취향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소인호, 『설공찬전 재고』, 『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1998 참조.)

따라서 필자는 정치적, 역사적 정황보다 작품의 내용에 좀 더 주목하여 ‘빙의(憑依)’라는 기이한 사건에서 비롯된 <설공찬이>를 죽음에 관한 당대인들의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현세적 삶의 행복이라는 바람이 녹아 있는 한 편의 문학 작품으로 읽어보려 한다. <설공찬이>는 죽은 영혼의 귀환과 그 영혼이 전해주는 저승에 관한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영혼의 귀환이나 저승에 대한 관심은 당대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이 논문은 곧 <설공찬이>에 반영된 작품 향유층의 사생관(死生觀)을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사생관은 ‘죽음에 대한 태도’,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의 용어로 대체되기도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의 수용도, 내세관, 죽음의 의미 등 다양한 구성성분이 선택적으로 혼합되어 정립되는 관점이다.¹¹⁾ 그 중에서 본 논문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호기심, 내세관 등에 주목하여 <설공찬이>에 반영된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의 문제’를 해석해보려 한다.

2. 원귀와 한에 대한 탈이념적, 현실적 이해

<설공찬이>는 설총란의 아들 설공찬이 사촌 동생 설공침의 몸에 빙의(憑依)된 채 지상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쫓아내려는 공침의 아버지 설총수에 맞서 공침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주변인들에게 저승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설공찬은 ‘나히 스물히로되 당가 아니 드렀더니 병호야 죽은 인물이다.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장가들지 못하였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

11)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사생관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 한국심리학회, 2004, 33-34면.

다는 점은 설공찬이 죽음 이후에도 현실에 미련을 두고 한을 품어 원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설공침의 몸에 설공찬 보다 먼저 빙의되었던 공찬의 누나 역시 혼인은 했으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요절하였으니 원귀가 되었다고 해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을 듯하다. 이 작품이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공찬, 설공침 형제와 관련된 실화¹²⁾를 바탕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 설씨 남매의 잇따른 요절은 지상으로 귀환한 원귀 이야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공찬 남매가 원귀가 되어 사촌동생의 몸에 빙의하는 이야기를 구체화시킨 상상력은 죽음을 한스러운 것으로 보는 무교에 기반 한 현실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무교에서는 죽음을 한스러운 것으로 본다. 한을 품고 죽은 영혼은 저승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면서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괴롭히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순탄한 천도를 위해 의례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 무당의 천도 과정을 통해 원령은 마음을 달래고 저승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¹³⁾ <설공찬이>의 공찬 역시 자신의 한에는 관심이 없고 축귀(逐鬼)의식을 벌이려고만 하는 작은 아버지 설충수에 맞서 공침과 노복에게 해를 가한다. 또 ‘원귀 설화’나 원귀가 등장하는 가정소설을 살펴보면, 겁탈을 피하기 위해 자결을 한 인물 혹은 계모에 의해 누명을 쓰고 죽은 인물들은 원귀의 형태로 등장하여 고을에 흉년이 들게 하거나 신임 부사를 죽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한을 풀게 된다. 이처럼 죽은 원혼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를 가하여 자신들의 존재와 억울함을 알리고 한을 푸는 이야기 구조는, 죽은 자의 원한은 반드시

12)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박이정, 2003 참조.

13) 최준식, 『한국인의 생사관 :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이해』, 『종교연구』 10, 한국종교학회, 1994, 183면.

한 풀림을 이뤄야 한다는 민속 신앙적 사고나 무교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며 죽음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공찬이>와 여타의 가정소설을 비교해보면 죽은 영혼 즉 원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태도와 목적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공찬이>와 가정소설 등의 귀신이 모두 한이 있는 원귀라는 점에서는 무교에서 말하는 원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정 소설에 등장하는 원귀의 경우 정절을 지키기 위해, 혹은 계모의 모해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작품은 유교적으로 이념화 된 죽음의 양상을 다루거나 가정 내의 비극이 사회적 비극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고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¹⁴⁾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는 데 작품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을 유발한 사회적 원인을 드러내려 한다. 때문에 작품 속에 묘사되는 원귀의 형상 역시 비현실적이면서도 전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① 홀연이 찬바람이 이러나며 정신이 아득하여 아모란줄모르더니 홀연 난디업는 일위미인이 녹의홍상으로 문을 열고 완연이 드러와 절 흐거늘 부시 정신을 가다듬어 문왈 <장화홍련전, 19면>

② 부시즉일에 친이 관속을거느리고 장화형데죽은 못에나아가 물치고 본 즉양쇼제시신이 옥평상에 자는듯이 누엇스되 얼골이조곰도 변치아니하여 산사름갓흔지라 부시보고 괴이 녀여 관곽을갓초아 명산을턱하여 안장하고 <장화홍련전, 27면>

①은 홍련이 자신과 장화의 원한을 풀기 위해 귀신의 모습으로 신임 철산부사 정동호 앞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 이전까지 소설은 장화와

14) 김귀석, 『가정소설의 설화적 요소 고찰 - 죽음, 재생, 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7집, 한국언어문화회, 1996, 274면.

홍련이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계모의 박대와 정절 모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홍련이 부사 앞에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유교적 정절 이념에 희생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며, 가정내의 비극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부터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현실적 이해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강한 이념성을 띤 비현실적 차원의 죽음이 된다. 그래서 장화와 홍련은 공포를 유발하는 무서운 원귀의 형상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와 같이 완벽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귀신을 묘사하는 데 ‘일위미인’, ‘녹의홍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①의 예나 물에 빠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옥평상에 누워 자는 듯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모습으로 장화와 홍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예문 ②의 내용을 통해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설공찬의 죽음과 그에 결부된 억울함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되거나 이념화 된 죽음으로 설명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¹⁵⁾ 그러므로 작품은 이들이 귀신의 형태로 이승에 귀환하게 된 그럴 듯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요절’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죽음의 원인 자체를 탐구하는 데 집중하지는 않는다. 설공찬 남매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자 개인적 차원의 죽음이며 비 균질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나 원인으로 통합될 수 없는 개별적 체험인 것이다. 전쟁이나 돌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인간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설공찬

15) 작품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설통난이는 지극한 가문잇 사람”이고 가문이 여유로우므로 공찬이 성례하지 못한 이유를 <김신부부전> 등에서처럼 사회적 원인으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과 같이 개별적인,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공찬이>에서 설공찬 남매는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거나 혹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오히려 매우 고결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비일상적이고도 전형적인 귀신의 형상 대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귀신의 양상으로, 즉 병의(憑依)라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다.

③ 통슈 집이올제 인는 아회 형금가지 닙홀 혀더니 고은 겨집이 공동으로 서 느려와 춤추거늘 기동이 7장 놀라 제 지집의 계유 드러가니 <설공찬이, 2-3면>

④ 공찬의 녀시 듯고 대로호야 날오되 이러트시 나물 뿌로시면 아즈바남 혜용을 변화호링이다 호고 공탐의 스시를 왜혀고 눈을 뿌니 즈의 지야지고 쏘 혀도 폰 배여내니 고 우회 오르며 꺾뒗겨티도 나갓더니 늘근 종이 겨티서 병 구의하다가 씨온대 그 종조차 주젓다가 오라개야 기니라 <설공찬이, 6면>

공찬과 그의 누이는 설공침의 몸을 빌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의 형상이 작품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③은 짧게나마 원귀가 된 설공찬 누이의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공찬의 누이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녹의홍상이나 소복을 입고 단정히 서있는 귀신의 형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상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낯설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또 ④를 보면 공찬은 자신이 병의한 공침의 외형을 괴상한 모습으로 변화시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는 등, 직접적인 해를 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한다. 그런데 공찬의 누이나 공찬이 이승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야기는 특별한 설명 없이 작품 초반부에 바로 등장하며 그 후로는 저승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장화홍련>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해원의 과정을 구체

적으로 서술하되 죽음 그 자체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저승체험을 다루고 있는 조선 전기의 다양한 설화들이나 필기 자료들¹⁶⁾, 그리고 <금오신화>나 <기재기이> 등 개별적인 죽음을 경험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보더라도 왜 죽었는가의 문제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거나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어떤 기운의 형태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므로 이념보다 감정에 충실한 원한을 다루고 이성적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괴이한 이야기로 이해되는 죽음을 다루고 있는 <설공찬이>와 이념화 된 죽음이나 신원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죽음은 한스러운 것이라는 무교적 이해를 공유하고 그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그 이후 죽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느냐에 따라 <장화홍련>과 같이 유가적 이념이 결부되어 죽음 자체보다는 외부 사건에 주목하는 계열과, <설공찬이>처럼 계속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원귀를 쫓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 주목하거나 저승 세계 등에 관한 호기심을 풀어내는 이야기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설공찬이>에서 원귀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 굿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물리치려 하고, 원령을 순탄한 천도의 길로 이끌려 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망자중심의 사고이기보다는 생

16) 『어우야담』, <종교편>에도 ‘빙의’현상을 다룬 <警鬼石>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警鬼石>은 귀신을 퇴치하는 영험한 ‘자수정’의 유래에 관한 전설적 성격의 이야기로서 죽음 이후의 세계나 저승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귀신(형수 남씨)이 살아있는 사람(시누이)의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이형대, 조윤희, 노영미 옮김, 돌베개, 2006.) 그러나 <설공찬이>와 마찬가지로 빙의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자중심의 사고이며 저승보다 이승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면에서 현재와 삶을 더 중시하는 무교적 사생관과 통하는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삶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풀어내고 있는 <설공찬이>의 면모는 다음 장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삶과 죽음 간의 심리적 거리 좁히기

가정소설이나 몽유록의 원귀 혹은 망자들은 개인이 경험한 비극적 사건 때문에 이승에 나타났더라도 결국은 사회적 비극으로 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죽음이 불러온 비극성이나 원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앞서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들 원귀와 만난 살아있는 인물들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나 삶과 죽음의 분리와 같은 문제 보다는 원귀들이 요구하는 신원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으로 이념화 된 사건을 다루는 ‘원귀 설화’나 가정 소설의 원귀담에 등장하는 ‘죽음’은 유교적 이념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해당할 뿐 관심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설공찬이>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 혹은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반영되어 있다. 설공찬은 아들의 몸에 병의된 공찬의 원귀를 두려워하여 귀신 쫓는 사람 김석산을 불러 방법을 행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혼으로 돌아온 공찬과 대화를 시도하고 죽음 이후의 변화에 대해 질문을 한다. 오른손잡이였던 공찬이 공

침의 몸에 들어와 왼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한 변화가 생겼는지 묻는 장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죽음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해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보여준다. 공찬의 영혼을 접한 사촌 설원과 윤자신은 “내 너희와 날별하면 디 다스 히니 흐마 머리조 쳐시니 7장 슬픈 브디 있다”¹⁷⁾라는 공찬의 말에 “하 고틈이 너겨 더싱 고틈”¹⁸⁾을 묻는다. 원귀를 두려워하면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내보이는 설충란이나 설원 등의 태도야 말로 영혼의 형태로 돌아온 죽은 자를 대하는 사실적인 모습일 것이다. 이때 이들 인물이 공찬의 영혼과 주고받는 대화는 <남염부주지>에서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목숨을 지닌 인간의 일상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더욱 현실성이 있다.

더싱 말을 날오디 더싱은 바다씨이로디 하 머리 예셔 게 가미 스십 니로 디 우리 돈로몬 하 썰라 예셔 술시에 나셔 즈시에 드러가 툽시에 성문 여러 든 드러가노라 호고 쏘 날오디 우리나라 일흠은 단월국이라 하니라 둥국과 제국의 주근 사름이라 이 짜해 모든니 하 만흐야 수를 헤디 못흐니라 쏘 우리 님금 일흠은 비사문턴왕이라 므뵈 사름이 주겨는 정녕이 이싱을 무로디 네 부모 동싱 죽친들 니르라 호고 쇠채로 티겨든 하 맞디 설워 니르면 칙 상고흐야 명이 진디 아녀시면 두고 진흐야시면 즉시 년좌로 자바가더라 <설공찬이, 8-9면>

인용문은 저승에 대한 설원과 윤자신의 질문에 공찬이 하는 답변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도 당시 사람들의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공찬은 저승에서도 이승처럼 식사를 하고, 저승과 이승

17) <설공찬이> 8면.

18) <설공찬이> 8면.

의 거리는 단지 40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비사문천왕’이 다스리는 ‘단월국’엔 중국인 조선인 할 것 없이 죽은 영혼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살아서 중국인이었던 사람은 죽어서도 중국인으로 살고, 살아서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가족의 개념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식사 습관, 가족 관계, 세금, 벼슬 등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이야기 될 수 있는 예들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가 현실이나 일상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두려움과 궁극증을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연관 지어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두려운 것으로만 여겨지던 죽음이 삶과 아주 동떨어진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작가 스스로는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¹⁹⁾

그런데 <설공찬이>에서 저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은 이미 <설공찬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생관이 유교적 사생관과는 거

19) 실제 채수는 언관으로서 황탄 괴이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죽인의 이야기인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귀신과 저승을 말하였고, 또 실록의 기록에 따르자면 윤회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만약 채수가 삶과 죽음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작품의 끝 부분에 이러한 이야기가 갖는 허황됨을 기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숙권의 『패관잡기』 기록에 따르면 채수는 오히려 “설공찬이 남의 몸을 빌려 몇 달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원한과 저승에서 들은 일들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또 말하고 쓴 것을 그대로 써 보게 하여 한 자도 틀리지 않게 한 것은 그것을 전하여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패관잡기(裨官雜記)』2; 蔡懶齋壽中廟初. 著薛公瓚還魂傳. 極怪異. 末云. 公瓚借人之身. 淹留數月. 能言己怨及冥聞事甚詳. 令一從所言及所書書之. 不易一字. 欲其傳信耳.)라는 말을 남겨 설공찬 이야기가 사실을 근거로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윤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언젠가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교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사람은 기의 응취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기신(精氣神)이나 그 결합체인 혼백(魂魄)으로 이루어져 일정기간 존속하다가 그 기운이 다하게 되면 양의 기운인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음의 기운인 백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한다.”²⁰⁾고 보므로 구체적인 저승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설공찬이>에서 묘사하고 있는 저승의 모습은 무교나 무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저승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이러한 저승 묘사는 세시의 식요와 같은 민요나 장제(葬祭)의식의 전통적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한국인은 전래적으로 가장 먼저 고복(梟復)을 한다. 망자의 이름이나 관직명을 부르면서 ‘복(復)’을 세 번 외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의 배면에는 영혼이 자의적으로 육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강제로 와서 데려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또 영혼을 데리고 저승으로 가는 저승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하는 사자상에 간장을 놓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사자들이 간장을 먹으면 갈증이 나서 자꾸 물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승가는 길이 늦어지거나 물을 마시러 아예 이승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바람이 그 기저에 있다.²¹⁾ 이렇게 산자가 삶의 길을 지나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는 순간을 최대한 지연하려 하거나 그 길을 걷는 죽은 자의 모습을 흠어진 혼(魂)의 모습이 아닌 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인식하고, 또 삶의 방식 또한 이승에서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태도는 <설공찬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인용했듯이 “므뵈 사름이 주거는 정녕이 이싱을 무로되 네 부모 동싱 죽친들 니르라 호고 쇠채로 티거든 하 맞디 설워 니르면 칙 상고호야 명이 진디 아녀시

20) 최준식, 앞의 논문, 1994, 180면.

21)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참조.

면 두고 진흥하시면 즉시 년좌로 자바가더라”라는 서술이 그 예이다.

그런데 <설공찬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대변하는 저승과 이승의 물리적 거리 인식의 측면에서 전통적 장제의식이나 민요에서 보이는 의식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 장제의식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이승과 유사하다고 믿으면서도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는 곳을 매우 막연하게 여겨 입관을 하면서 오열을 한다. 또 민요에서는 수록으로 뚫린 공간, 수평적 거리 저 쪽 어디라고 가시적 표현은 하면서도 볼 수 없는 먼 길로 묘사하여 삶과 죽음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낸다.²²⁾ 그런데 <설공찬이>에서는 “더성은 바다사이로되 하 머리 예서 게 가미 스십 니로되 우리 돈로몬 하 썰라 예서 술시에 나셔 즈시에 드러가 툃시에 성문 여러 든 드러가노라”라고 하여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 40리 안에 저승을 뚫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거리를 좁혀보려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삶과 죽음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보려는 이유는 죽음 자체에 대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느끼고 있는 삶의 고난과 무게를 저승이라는 내세 공간에서 수월하게 극복하는 전복적 상상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는 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죽음과 사후세계를 유교와 같은 철리(哲理)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공포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의 고난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보는 내세관과 호기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승이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고 현세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은 설공찬이 묘사하는 저승 운영의 원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

22) 류종목, 『민요에 표현된 한국인의 생사관』,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135면.

4. 부조리한 현실 전복의 상상력과 저승의 질서

저승이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고 현세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은 당대에 만연해 있었던 사후세계를 강조하는 내세신앙, 곧 불교적 인과응보론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예서 님금이라도 주전통 ㄱ든 사름이면 다 디옥의 드렸더라 주전통 님금이 이는 당나라 사름이라 적선 곳 만히 혼 사름이면 예서 비록 천히 든니다가 도 ㄱ장 품노피 든니더라 (중략) 이성에서 사오나이 든니고 각별이 공덕 곳 업스면 더성의 가도 그 가지도 사오나이 든니더라” <설공찬이, 10-11면>

인용문은 저승이 얼마나 합당하고 공평한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설공찬의 발언이다. 그런데 설공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반대로 현실에서는 주전충 같은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자손들도 대대로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으며, 고난을 겪던 사람도 저승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공찬의 말은 ‘인과응보’나 ‘권선징악’과 같은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저승의 이상적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에 존재하는 부조리를 꼬집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단지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가 저승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당대인들의 강렬한 소망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죽음을 기점으로 현세의 삶은 끝나지만 대신 저승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아 삶을 영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력은, 현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이 또 다른 양상으

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선한 삶, 가치 있는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설공찬이 설원과 윤자신 등의 사촌을 부른 후 이들을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쪽 풀어내는 저승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는, 내세 혹은 저승의 실존을 확신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기능 보다는 현실의 고난이나 부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에서 비록 녀편네 몸이라도 잠간이나 글 곳 잘하면 더성의 아미란 소임이나 맛드면 굴실이 험하고 도히 인나니라”²³⁾와 같은 내용은 현실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여성의 지위와 독자적 권한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현재를 살아 갈 힘이 되는 낙관적 희망과 상상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상상력 역시 또 하나의 새로운 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력이 유교적 이념과 같이 국가, 사회, 가문을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아보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체계적인 이념으로까지 형상화 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괴로움이 없는 극락에 가려면 뉘아야 하는 효, 적선 등의 공덕은 사회적인 것이기보다는 개인적, 가정적인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기복²⁴⁾에 있기 때문이다.

23) <설공찬이> 11면.

24) 류종목, 앞의 논문, 2004, 138면.

이렇게 현실적 상상력에 기반한 저승 운영 원리를 이야기 한 뒷부분에는 성화황제가 신하 애박이를 염라대왕(비사문천왕)에게 보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명 연장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²⁵⁾ 성화황제와 신하 애박이에 관한 삽화는 “국내로 전입되며 <당태종전> 등의 작품을 낳기도 한, 중국 소설 <서유기>의 10-12회 부분에 나오는 당태종고사류(唐太宗故事類)의 변이형태”²⁶⁾이다.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보편적 인과응보론 혹은 권선징악론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다.²⁷⁾ 또한 현세의 궁극은 누구나 죽음으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 죽음의 권위에 순응하는 겸허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상상하는 저승이 불교적 인과응보론과 같은 타당한 원리에 따라 삶의 모순들을 해결하고 부조리를 바로잡는 공간이라고

25) 염라대왕은 황제의 청을 받아들여 처음에는 1개월의 수명 연장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화황제가 반복하여 1년을 요구하자 거꾸로 보란 듯이 황제가 사랑하는 이의 몸에 해를 가한다. 이처럼 현세의 권력이 저승의 권위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효도하여 왕이 된 아들>과 같은 ‘저승설화’에도 나타난다. 저승설화에 관한 논의는 이영수, 『저승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 구전설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참조.

26) 소인호, 앞의 논문, 1998, 55면.

27) 막강한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드러난 설화의 예로는 <효도하여 왕이 된 아들>, <아버지 묘를 잘 써서 왕이 된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선형 연구(이영수, 『저승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 구전설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은 지 일 년이 지난 사람을 살려내라는 왕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왕을 저승으로 잡아가지-필자) 염라대왕이 전지전능한 힘을 소유한 인물이 아니며, 따라서 그 권위도 절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화 전승집단은 죽음이란 불가항력적인 일이기에 이승과 저승의 대결에서 저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여 죽음의 절대적 힘에 관해 이야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더하여 이러한 설화에서 ‘평등성’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서 <설공찬이>가 내세를 전적으로 긍정하고 현세의 삶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내세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세관에 따라 궁극적으로 그곳을 지향하는가 아닌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소멸할까봐 느끼는 불안이 있는데, 이를 ‘개인 내적 귀결로 인한 공포’라고 한다. 만약 내세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소멸의 공포감은 덜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초월적 귀결로 인한’ 공포 가운데 죽음의 불가지성에 대한 공포나 사후세계의 불가지성에 대한 공포, 혹은 내세에서의 처벌에 대한 공포 등의 문제는 내세를 믿는 사람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두려움이다.²⁸⁾ 자신의 상상 범위를 뛰어넘는 일이 내세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상상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공찬이>에서 저승의 질서를 말할 때 배경이 된 불교적 인과응보론이나 내세관은 이 작품의 일부를 대변하는 사생관은 될 수 있지만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오히려 내세의 존재를 긍정하고, 내세의 운영원리인 인과응보론을 긍정하는 이 모든 상상이 궁극에는 현세의 삶에 대한 욕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공찬이>가 궁극적으로 현세적 삶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음은 다음 장에서 결론을 겸하여 살펴보겠다.

5. 결론 : 죽음을 통해 확인한 현세적 삶의 가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공찬이>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나 저승의 운영원리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저승

28)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앞의 논문, 2004, 35면.

은 현실의 부조리가 교정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두렵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미지의 공간으로 당대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한문 뿐 아니라 국문으로 까지 번역되어 이 이야기가 널리 퍼졌음을 볼 때, 이러한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일상’으로 불리는 제도권에서의 일탈²⁹⁾이나 신기한 이야기에 대한 일차적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찬이 즉시 연화대로 끌려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 증조부 설위(薛緯)에게 청탁을 한다든지, 성화황제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저승행을 1년만 연기해달라고 염라대왕에게 청을 넣는 이야기는 아무리 염라대왕이 바른 법으로 저승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도 또 현세의 노력에 따라 저승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해도, 저승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은 못할 것이라는 현세 중심적 생사관이 <설공찬이>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것’이 유발하는 두려움이 이성적 혹은 윤리적 사고에 앞서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바라보았던 당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념화된 서사물에서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이념적 당위성을 찾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비교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승이나 죽음을 다룬 이야기들은 실제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것보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완충제로서의 기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설공찬이>에서도 망자인 설공찬을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죽음의 미

29) 신선세계나 저승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과 주변문화의 길트기’로서 제도화된 질서에서의 일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선경의 연구(정선경, 『太平廣記와 於野談 幻 서사의 공간서술미학』, 『중국어문학지』25, 중국어문학회, 2007.)를 참조할 수 있음.

덕보다는 죽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곧 삶과 죽음을 동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설공찬이>는 환생, 재생과는 또 다른 ‘빙의’라는 방식으로 죽음과 삶이 만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죽은 영혼이 누군가의 몸에 들어와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점만 보면 이 작품은 매우 기괴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빙의 현상의 괴이함을 묘사하다가 어느 순간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삶 속에서 느끼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낙관적 상상을 통해 극복해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이나 상상이 삶의 맥락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세적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전쟁의 상흔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잘리고, 누린내가 나는 그로테스크한 형상의 귀신이나 요괴를 이야기 했다. 전란 이후 황폐와 혼란 속에서 수많은 죽음이 양산되지만 수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 무패하고 무능한 관리가 판을 치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조령(祖靈)의 강조와 함께 자살한 여성 원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조선 후기 가부장적 이념이 강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기증된 폭압이 원귀를 양산한 것이다.³⁰⁾ 이처럼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

30)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 야담집 속의 귀신, 요괴담의 변화 양상 - 귀신, 요괴 형상의 변화와 관심축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562-570.)

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자 현실에 대한 반성, 재확인(再確認)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전쟁의 상흔이나 이념의 강화에서 파생된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독특한 국가적 경험이나 이념이라는 사회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설공찬이>에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를 떠나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죽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설공찬이>의 내용이 실제 죽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든 안 했든, 설공찬의 죽음과 설공침의 귀신들림을 통해 이 작품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과 상상을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또 현세적 삶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다. 처음 이야기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설공찬 남매, 그리고 귀신 들린 설공침이라는 특정한 개인에 얽힌 기이한 사건에서 시작되지만, <설공찬전>에서 <설공찬이>로 오는 동안 유지될 것은 유지되고, 혹 첨가되거나 변형될 것은 수정되며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형과 전파 선상에 위치한 작품인 <설공찬이>를 통해 우리는 이 작품에 반영된 당대인의 이념화 되지 않은 ‘현세중심적 사생관’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충이나 열과 같은 유가적 이념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작품을 제외하면 삶과 죽음을 이야기 하는 문학작품들이 궁극적으로는 현세중심적 사생관을 기반으로 하여 ‘삶’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공찬이>의 사생관과 다른 문학 작품들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장화홍련>의 경우만 해도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나 서술은 없지만, 원한을 풀 장화와 홍련이 다시 배좌수의 딸로 환생하여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결말을 그리고 있고 유교적 이념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가문소설에서도 삶의 연장을 위해 하늘에 제를 올리는 등 삶과 죽음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않고

있다.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고 사랑이라는 열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 <협창기문>의 결말³¹⁾ 역시 현재 살아있는 내가 느끼는 감정, 즉 살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주는 쾌락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살아서 무언가를 느끼고 안다는 것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게 문학 속에 근본적으로 녹아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설공찬이>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매우 현실적인 차원에서 진솔하고 소박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러한 태도의 바탕에 ‘현세중심적 사생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시습, 『금오신화』, 심경호 역, 홍익출판사, 2000. 1-382.
 박성규, 『주자철학의 귀신론』, 한국학술정보, 2005, 1-221.
 유몽인, 『어우야담』, 신익철, 이형대, 조용희, 노영미 옮김, 돌베개, 2006. 1-815.
 유초하, 『한국인의 생사관』, 태학사, 1-288.
 이복규, 『설공찬전 연구』, 박이정, 2003, 1-327.
 _____, 『설공찬전』, 시인사, 1997, 1-343.
 임 방, 『천예록』, 정환국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1-503.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1-116.
 『장화홍련전』, 아단문고 고전 총서 6, 현실문화, 2007.
- 김귀석, 「가정소설의 설화적 요소 고찰 - 죽음, 재생, 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7집, 한국언어문학회, 1996, 271-286.
 김기현, 「유교의 상제례에 담긴 생사의식」, 『유교사상연구』 15, 한국유교학회, 7-42.

31) 조혜란, 「<협창기문(俠娼奇聞)에 나타난 죽음의 성격」, 『한국고전연구』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03면.

- 김승호, 「불교전기소설의 유형 설정과 그 전개 양상」, 『고소설연구』17, 한국 고소설학회, 2004. 107-131.
- 김정숙, 「조선시대 필기, 야담집 속의 귀신, 요괴담의 변화 양상 - 귀신, 요괴 형상의 변화와 관심축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555-577.
- 나희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생사관(生死觀)」, 『선비문화』 17, 남명학연구원, 2010, 15-21.
- 류종목, 「민요에 표현된 한국인의 생사관」, 『한국민요학』 14, 한국민요학회, 2004, 111-150.
- 서경호, 「소설적 서사의 형성과정에 관한 검토 - 귀신과 저승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15, 중국어문연구회, 1998. 297-316.
- 소인호, 「설공찬전 재고」, 『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1998, 47-62.
- 안병국, 「태평광기의 이입과 영향」, 『은지논총』6, 은지학회, 2000, 161-228.
- 안병국, 「'저승' 관념에 관한 비교문화적 고찰 - 저승설화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사상과 문화』2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4, 321-351.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사생관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 한국심리학회, 2004, 31-82.
- 이복규, 「조선 전기 사대부가의 무속-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 민속학보』 9, 한국 민속학회, 5-30.
- 이영수, 「저승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 구전설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535-572.
- 이용주, 「주희의 정통의식과 귀신론」, 『중교문화연구』2, 한신인문학연구소, 2000, 239-258.
- 이지영, 「왕랑반혼전의 무속적 연원에 관한 시고」, 『고소설연구』 5, 한국 고소설학회, 1998, 333-366.
- 정규복, 「서유기와 왕랑반혼전」, 『비교문학』 별권, 한국 비교문학회, 1998, 657-669.
- 정선경, 「太平廣記와 於于野談 幻 서사의 공간서술미학」, 『중국어문학지』25, 중국어문학회, 2007, 383-410.
-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진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07-334.
- _____,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 단편 서사류를 중심

- 으로,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 99-126.
- _____, 「설공찬전 파동과 16세기 소설인식의 추이」, 『민족문화사 연구』 25, 민족문화사학회, 2004, 38-63.
-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신이(神異) 인식의 의미」, 『문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37-64면.
- _____,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59-285.
- 조혜란, 「〈협창기문(俠娼奇聞)〉에 나타난 죽음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73-107.
- 최운식, 「재생설화의 재생양식」, 『한국민속학』7, 민속학회, 1974, 97-101.
- 최준식, 「한국인의 생사관 :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이해」, 『종교연구』 10, 한국종교학회, 1994, 173-208.

ABSTRACT

A view on life and death reflected in *Seol, Gongchan-jeon*
a Korean-translated version

Hur, Soon-woo

This paper examines *Seol, Gongchan-i*, which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the mid-17th century from *Seol, Gongchan-jeon* written in Chinese by Chae, Soo in the beginning of the 16th century. *Seol, Gongchan-i*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excavated documen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Seol, Gongchan-jeon* that incurred the biggest slip of the pen in the Joseon Dynasty. It has been spread to the public and enjoyed in Korean, having travelled through the temporal gap of 160 years, although it was declared as a forbidden book. *Seol, Gongchan-i*, is also significant in itself as a literary work in that it depicts the contemporary people's fear and curiosity for death and love for life, by dint of a bizarre phenomenon of 'possession,' in a simple manner.

The attitude towards life and death was read from *Seol, Gongchan-i*, in terms of horror for death, interests in death, and an outlook on afterlife. The story describes the rendezvous between humans and lemures, in which the appearance of lemures is not given in detail. However, the description of a spirit in *Seol, Gongchan-i* is different from that of a spirit ideologized in the framework of Confucianism in that the spirit causes a sensation of fear by harming and deforming the person who is possessed and other people, to resolve his sorrow. This feature of spirits, not affected by Confucianism and attempting to resolve regret by intentionally instigating terror, is originated from a realistic view on death, which is based on the longstanding shamanistic religion.

In *Seol, Gongchan-i* people regard a spirit as an object of fear and try to exorcise it; on the other hand, they ask the spirit about posthumous

life and gratify their curiosity. Their questions for Gongchan and Gongchan's portrayal of the other world is fairly realistic and ordinary. Only 40-li away from humans' abode does this other world exist, in which everything, including familial relationship, social positions, and tax, is the same as this life. This must be from the contemporary people's imagination that was trying to narrow a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death and life, by decreasing the physical distance.

In this idea there appears to be a wish that the next life will be an ideal time and space in which this life's hardship or absurdity can be settled. This wish does not come from thoughts that affirm and desire the next life; rather, it is a kind of strength that affirms this life, which is full of suffering, and it is a vicarious experience through an imaginal space while praying for individual luck.

Seol, Gongchan-i talks about fear for death, curiosity about afterlife, and overcoming this life's difficulty in the next life; however, it actually centers around a 'perspective on life and death based on reality' since it consists of fear and curiosity that stem from attachment to this life. The tendency of pursuing the reality-oriented view of life and death, which admits a ghost resembling a human, is discovered in shamanism, folk songs, and tales. It must be derived from a very realistic and simple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as opposed to the philosophical standpoint.

Key Words *Seol, Gongchan-jeon*, possession, a view on life and death, fear for death, curiosity for death, love for life, an outlook on afterlife, the reality-oriented view of life and death.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